

기본신앙교육자료 《 찬 양 》

「노래 한 편」 “새노래”	7
「노래 한 편」 “의인의 삶”	9
1. 여호와를 찬양하라	10
1) 하나님을 찬양하라	10
2) ‘할렐루야’의 의미	10
3)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11
2. 찬양의 의미	12
1)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12
2)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12
3)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	13
4) 하나님께 찬양 영광돌리며 행하는 것이 담대한 것이다	13
3. 왜 찬양해야 하나	14
1) 사랑의 뜻과 휴거를 이루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여라	14
2) 삼위가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찬양하여라	14
3)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5
4)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큰 일이다	15
5)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16
4. 찬양하면	17

1)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 좋다	17
2)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17
3) 찬양하면 잘 되고 소원이 성취된다	17
4) 찬양하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긴다	19
5) 찬양하면서 전도하면 된다	19
6) 찬양하면 병도 낫는다	19
7) 찬양하면 생활관, 정신관이 바뀐다	20
8) 찬양하면 힘이 온다	20
9)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진다	21
 5. 찬양의 방법	22
1)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라	22
2) 여러 가지로 찬양해야 한다	22
3) 노래만 100곡 200곡씩 부르지 말고 대화하여라	23
4) 자꾸 불러야 한다	23
5) 새노래로 찬양	24
6)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	25
7) 전문적으로 찬양	25
 6. 언제 찬양해야 할까?	26
1) 늘 찬양해야 합니다	26
2) 외롭고 쓸쓸할 때 고독할 때 걱정 있을 때	26
3)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26
4) 일 할 때	27
5) 새벽 시간	27

7. ‘노래’에 대한 말씀	28
1) 가사와 곡 그리고 노래	28
2) 생명의 노래를 부르자	29
3) 최고의 가수	29
4) 노래를 잘하는 사람	30
5) 노래 승리의 비법	30
6) 기분이 좋을 때 노래도 잘 불러진다	31
7) 기도 안 하고 하면 노래, 찬양 제대로 안 된다	31
8) 사랑도 노래도 닦아 놓아야 한다	31
9) 운동을 많이 해서 몸 관리를 해야 한다	31
10) 노래도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고 해야 한다	32
11) 노래도 생각이 살아있어야 잘한다	32
12) 노래 연습 많이 해야 한다	32
13) 기뻐하고 좋아하며 자꾸 노래를 불러야 한다	33
14) 노래의 표현	33
15) 표현을 잘해야 된다	34
16) 노래 부르는 자가 가사와 곡을 살리면서 해야 한다	34
17) 노래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34
18) 섭리의 찬양 단상에서 노래하는 자	34
8. 찬양의 자세	36
1)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	36
2) 생활 속에서 스스로 기뻐서 해야 한다	36
3) 새노래는 깨끗한 신부들이 불러야 한다	37
4) 누구나 찬양해야 한다	37
5)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38

9. 새노래	39
1) 새 시대 새 노래	39
2) 세상 노래와 새노래	39
10. 작사 작곡	41
1) 하나님은 곡을 주시고, 성령님은 가사를 주셨다	41
2) 새노래 작사 작곡법	41
3) 가사 잘 만들기, 곡 잘 만들기	41
4) 가사에 따라 작곡이 달라야 된다	42
5) 가사 적어 놓고 음을 흥얼거리면서 반복해서 부르면 된다	43
6) 새노래 지을 때 두 가지, 가사와 곡을 맞춰라	43
7) 노래 작곡 작사에 신경 써서 만든다	43
8) 틈 시간을 가지고 한다	44
9) 핵심 교리는 모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	44
10) 얼마나 잘 하느냐, 수준이 문제다	45
11. 찬양 사연과 실천	46
1)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46
2) 찬양 기도 성경의 삶	46
3) 찬양을 한번에 300번 100번씩 했다	47
4)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라 - ‘포도’사연	48
5) 자꾸 해야 됩니다	50
6) 각종 표적과 찬양의 표적	51
7) 작사 작곡 ‘표적의 역사’	51
8) 낙심할 일이 있어도 작사 작곡해서 노래 불렀다	52

9)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행해라	52
10)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53
11) 처음에는 실 가닥같은 데서 행했다	55
12) 지휘하는 것을 하나님께 배웠다	55
 12. 새노래 사연	 57
1) 나는 행복하다	57
2) 기도는 일이다	57
3) 성령님	58
4) 화목	59
5)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59
 13. 찬송가 사연	 60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60
2) 주의 주실 화평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60
3) 요한복음 3장 16절	60
4)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61
 14. ‘찬양’ 성경구절	 63
 15. ‘찬양’과 성경인물	 68
1) 다윗	68
2) 아브라함	69
3) 야곱	69
4) 이사야	69

16. ‘찬양’과 월명동	71
1) 찬양하는 거룩한 곳	71
2)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쓰여지는 거룩한 성전	71
3) 자연성전	71
4) 월명동 소나무 : 하나님을 찬양	72
5) 성지 땅에 백합화야	72
6) 폭포 사랑	73

「노래 한 편」 “새노래”

〈새노래〉

섭리의 기쁨 말씀
주님의 생명 말씀
보아라 새것이라
새노래 부르라

새역사 사람들아
새노래 부르라
주 말씀 들으면
빛같이 실천하라

새노래 부르며
말씀을 전하라
삼위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을 믿으니
휴거를 하였네
새시대 노래로
영광을 돌리세

삼위도 주님도
기쁨이 넘치네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다

주님의 뜨거운

말씀에 변화다
하나님 창조한
목적의 역사다

「노래 한 편」 “의인의 삶”

<의인의 삶>

주는 오늘도 의인들을 살피시느라
오직 땅만 내려다 보나이다

고개가 아프신지 두 손으로 턱을 고이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인생
저 하늘에 별같이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주를 찾고, 진리를 찾으며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주는 오늘도 턱을 고이시고
땅만 쳐다보나이다

그러나 의인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주의 눈과 눈이 마주 치나이다
주는 깜짝 놀라시고
의인은 그만이야 감격해 눈물을 흘리나이다

<영감의 시 1집>

1. 여호와를 찬양하라

1)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치 않느냐. 감사할 일이 없느냐? 찬양할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왜 찬양치 않느냐. 지었으므로 찬양하도록 하라.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세상의 임금들 앞에는 특별한 초대를 받아야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든지 특별한 자들이 임금님 앞에 가서 그 순간 노래 한 곡씩을 뽐니다. 임금님 앞에 가서 노래 한 번 하고 와서는 평생동안 “나는 언제 왕 앞에 서서 노래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촌이 무대니까 좋은 곳에 가서 찬양하고, 환경이 어떠한지 찬양하고, 어둔 밤길을 갈 때도 찬양하고,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서 찬양하고 없으면 방 안에서 찬양하고, 어느 환경과 처지를 막론하고 찬양하고, 초청 안 했어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노래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다 들으십시오.

2) ‘할렐루야’의 의미

할렐루야! 처음 온 사람들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듣고 ‘왜 이런 단어를 쓰나?’ 하겠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언어로 기쁨이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어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옳다.’ ‘옳습니다.’ ‘나도 옳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은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거의 공통어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것은 “나도 옳습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나도 예, 확실하게 한 뜻 한 마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시편 150:1-6)

하나님을 각종 현악을 총동원하여 찬양하라고 고백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성경 여러 곳에 새노래로 찬양하라 하였 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44:9)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찌어다

(시편 149:1)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 14:3)

2. 찬양의 의미

1)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마다,
<그 시대, 혹은 그 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 노래>을 늘 불러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2)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의로움으로 증거하며 사는 삶이다.
 - * 이 시대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한 것에 감사 감격하며 뜻있게 살아야 된다.
-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도 그리하도록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크나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본인이 은혜를 받는 일이며, 본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을 세우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100% 해 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술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100%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일>도,

<생명을 사랑해 주며 관리해 주는 일>도 100% 하면,

역시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와 그냥 “저는 100%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자는 그 사랑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

4) 하나님께 찬양 영광드리며 행하는 것이 담대한 것이다

◆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행하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3. 왜 찬양해야 하나

1) 사랑의 뜻과 휴거를 이루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여라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정기적으로 밥 먹듯이 들어야 한다.
안 하면 밥 굶는 것과 같다.
찬양도 감사 생활도 그러하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삶도 역시 그러하다.

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체다.
실제 휴거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해라.
제대로 깨달으면, 잠도 안 온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당선되도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하고 밤잠을 설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은 5년을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히 개성의 왕 노릇 하며 사니, 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녕코 사랑의 뜻을 행하고 이루셨다.
우리가 그 천 년 역사의 행하심에 참여하여 사는 자가 되었나니,
삼위 앞에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며 살지어다.

2) 삼위가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찬양하여라

2.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놓고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여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그 주권권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느니라.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증거하며 찬양하여라.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라.
4.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알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니, 그 말씀을 의심 없

이 믿고 따라가야 된다.

5.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행하신다. 그때는 알지 못해도, 후에 알게 되면 대대손손 영광을 돌리고 증거하며 기뻐하게 된다.

3)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고 했습니다. 숨을 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명을 통할 지휘를 하시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있는데 몰라서 못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해줄 테니 꼭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찬양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았으므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위대한 말이고 참으로 깊은 진리를 깨달은 말씀입니다.

4)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큰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크나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본인이 은혜를 받는 일이며,

본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을 세우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어제 내가 새벽 1시까지 노래를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음과 함께 들려 왔습니다.

“노래가 얼마나 너와 나 사이에 이상을 이루는지 아느냐?”

그 순간 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놀려면 노래를 불러야 되겠고, 기쁘면 노래를 불러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술을 쓰려면 노래를 불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많이 불러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노래로 가슴이 찡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고통에 남이 참여하기 어렵고, 남의 배고픔을 내가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깨닫는 자만이 더욱 찬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노래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4. 찬양하면

1)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 좋다

우리 이 시대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촌이 무대니까 좋은 곳에 가서 찬양하고, 환경이 어떠하든 찬양하고, 어둔 밤길을 갈 때도 찬양하고,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서 찬양하고 없으면 방안에서 찬양하고, 어느 환경과 처지를 막론하고 찬양하고, 초청 안 했어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노래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나도 오늘 새벽에 산은 멀지만 새벽에 캄캄한 때부터 하나님의 정한 곳, 기도하는 곳에 가서 노래하고 내려왔습니다.

찬양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도 찬양하도록 하라.” 고 하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다. 좋다. 찬양할 때 좋았다. 그와 같이 찬양을 너와 같이 하도록 하라.” 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을 이미 산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찬양하니까 “찬양하라” 고 했습니다.

“노래하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래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찬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가수라고 해서 그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으면 먹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3) 찬양하면 잘 되고 소원이 성취된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은혜는 오늘 여러분에게 받게 해줄 테니까 은혜를 받으면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부터 좋고 자세부터 좋은지 한번 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축복하고 감격하며 복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그의 지은 바가 되었으니 늘 찬송하고 찬양하라. 천하의 모든 만물들도, 사람도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가 지었기 때문에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주일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 소원이 늘 성취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진정 찬양하면 해주겠다. 금주에 찬양의 불이 붙어서 정말로 계속 일생 가운데 불을 붙인다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고민 걱정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은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붙여서 일생동안 한다면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인지 묻지 않고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찬양에 불이 붙어 그 불이 일생동안 계속 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4) 찬양하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긴다

내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아벨들 편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섬리사람 말고 온 지구상의 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은 늘 군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
라.”

그러면서 “여호와 닛시! 여호와 닛시!”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서 싸우니까 적들이 맨날 졌습니다. 적들은 하나님을 못 찾으니 맨날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군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간단하
고 너무 쉽지 않습니까?

5) 찬양하면서 전도하면 된다

찬양하게 되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도 하면 됩니다.

나도 찬양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감동되었다고 나를 따라와서 전도했습니
다.

6) 찬양하면 병도 낫는다

청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 병도 100% 낫습니다.
선생님이 오면 힘이 납니다. 나는 찬양을 해도 죽은 것같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에 힘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도 힘없이 “내주를 가까이” 나 부르면 힘이 안 옵니다.
사람이 힘쓰는 대로 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륜의 법칙입니다.

입으로 자꾸 노래하면 소화도 잘 되고, 노래하면 음성도 좋아지고,
노래하면 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노래하면 신진대사 수축작용이 잘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 치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하면 소화가 확확 됩니다.

7) 찬양하면 생활관, 정신관이 바뀐다

관이 바뀝니다. 사람이 늘 노래하면.
하루에 노래를 일곱, 여덟 번씩 해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찬양하든지, 민족을 찬양하든지 한번 일곱 여덟 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불러보면 자기 생활관이, 정신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면!
그래서 “찬양하라.” 한 것입니다.

8) 찬양하면 힘이 온다

- 선생님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힘>을 ‘보따리 주듯이’ 주지 않으시고,
각 분야별로 <기도>, <말씀 받기>, <말씀 전하기>,
<전도>, <관리>, <봉사>, <찬양>, <감사 생활>을 행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 <세상의 재벌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돈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며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된 것입니다.

- 우리도 <신앙의 재벌>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재벌>이 되려면, ‘각 분야별로’ 매일 열심히 행해라.”

- <기도의 재벌>이 되려면, ‘매일 기도’ 해야 됩니다.

- <전도의 재벌>이 되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 <감사의 재벌>이 되려면,

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 <찬양의 재벌>이 되려면,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 <말씀의 재벌>이 되려면,

<시대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써먹어야 됩니다.

“노래하라.

그리하면 너의 신앙도 불붙게 되고,

인생도 멋있게 살게 되고, 감격해질 수 있다.”

그래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9)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진다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이기는데 빠져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찬양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 사탄, 악한 영, 악질적인 영들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사라집니다.

찬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5. 찬양의 방법

1)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라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될까요?

가수들은 청중을 위해서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노래하는데

나는 노래할 때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귀로는 듣지만 내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고 부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들이다. 귀가 있으니 들을 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들어보라고 노래한다” 이런 철학이 꼭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아마 하루만 찬양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입니다.

하루까지 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부를 때부터 은혜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 치며 자기도 들었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 들어보라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무대에서 노래할 때 청중을 향해서 노래하고,

혹은 노래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고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여러 가지로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 노래하면서 섬기라!

노래는 콧노래도 있고, 입노래도 있고, 행동(行動) 노래도 있습니다.

흥겹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흥겹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찬양해야 그 노래가 지루하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새들이 운다고 합니다.

창조한 하나님이 어이타 평생 새들이라고 울다만 죽게 하겠습니까?

타락의 고통으로 사람들이 짜증과 고통과 울상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니까, 모든 만물도 그런줄 착각하고도 남아 새들이 운다고 표현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와 같이 만물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 부르는 시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범사의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의 찬양, 감사의 찬양, 말씀의 찬양, 학문의 찬양, 예술적 찬양, 시대성을 띤 각종 각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3) 노래만 100곡 200곡씩 부르지 말고 대화하여라

아무것도 아닌 미신을 섬기면서 하루에 얼마나 절을 하는지 아느냐.

하루에 1000번, 3000번씩 염주를 돌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복을 빈다.

하루에 노래만 100곡, 200곡씩 부르지 말고 ‘대화’ 하여라.

노래는 20번 정도 불러도 많이 부르는 것이다.

<이야기하기>다. <대화하기>다.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일체 되어 행하여라.

4) 자꾸 불러야 한다

나도 길이 들어서 자꾸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되었으니까 영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부활되었으니까 영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는 소망 주님뿐
내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뢴 마음뿐일세

이렇게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자꾸 노래를 계속 불러보면 눈물
이 줄줄 나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노래 부르는
표적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자! 10번, 20번씩 불러라.
내 방의 여치는 1시간에 700번 이상 운다. 종일 남다르게 운다. 하루 몇
번 우나 세다 못 셤다. 5초에 1회 운다. 내가 밥을 주니 그리 운다. 내가
밥 주니 좋아서 울고, 힘이 있으니 운다. 새벽 한 시면 일어난다. 돌들도
소리 지른다 했는데, 곤충도 그리한다. 이 곤충은 큰 계시를 해 주었다.

5) 새노래로 찬양

시편 기자는
(시편 150:1-6) 하나님을 각종 현악을 총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고백했습
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성경 여러 곳에 새노래로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편 144:9)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찌어다(시편 149:1)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3)

6)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대의 일’ 을 좋아했습니까?

그것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같이 일했습니까? 그것도 찬양을 한 것입니다.

7) 전문적으로 찬양

지금은 그냥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느 날 공연을 한다고
치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6. 언제 찬양해야 할까?

1) 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고 즐겁게 하라. 감격하고 감사하라.”

노래를 안 해본 사람은 생소할 것입니다. 나도 노래를 못하고 노래에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은혜를 받고서

노래하는 것을 배웠고, 노래도 100여 곡을 개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곡들을 빨리 작사 작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기쁜 일인가!

노래의 은혜를 받고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옆의 사람이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에 충만하게 되고 마음이 감동되고 젖어들게 됩니다.

2) 외롭고 쓸쓸할 때 고독할 때 걱정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그리고 고독할 때,
그리고 걱정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불만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해주는 것입니다.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라 기쁘게 하라. 감사하라.”

3)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군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쉽게 끝납니다.

군인들이 하나님을 찬양치 않고 자기를 중시하고 누구를 찬양하든지 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면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가면 그냥 이겨 버립니다. 히적부적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아벨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섭리사람 말고 온 지구상의 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이기는데 빠져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찬양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 사탄, 악한 영, 악질적인 영들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사라집니다. 찬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4) 일 할 때

<일을 할 때>도 ‘일’ 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노래하고, 기뻐 찬양하고, 화동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만 하면, 지겹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은 ‘복’ 이요, ‘낙’ 입니다.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해야 됩니다.

5)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을 꼭 잡고 다스려라. 요즘은 ‘낮 시간’ 이 가장 짧다.

그래서 ‘새벽’ 부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깊이 보고,

<생명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행하여라.

7. ‘노래’에 대한 말씀

1) 가사와 곡 그리고 노래

1. <가사>에 따라 ‘곡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2. 아무리 <좋은 가사>도 <곡>을 잘못 붙이면 내용이 죽는다.
 3. <곡>은 ‘활력소’다.
 4. <곡>은 ‘생기’다. ‘생명’이다.
 5. <곡>은 ‘강도’다. ‘스릴’이다.
 6. <곡>은 ‘표기’다.
 7. <곡>은 ‘가사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나타낸다.
 8. <곡>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9. <곡>은 ‘소로 길’과도 같고 ‘대로’와도 같다.
 10. <곡>은 ‘산맥’과도 같아서 오르고 내린다.
 11. <곡>은 ‘흐르는 개울물’과도 같고 ‘계곡의 물’과도 같다.
 12. <곡>은 ‘여러 형상과 모양의 집’과 같다.
 13. <곡>은 ‘사람 몸의 선’과도 같고 ‘옷’과도 같다.
 14.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곡>에 의해 노래가 좌우된다.
 15. <시>는 ‘내용’이다. <노래>는 ‘곡’이다.
 16. <가사>에 의해 ‘곡’이 흘러간다.
 17. <몸>에 ‘옷’을 맞춰서 옷의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지듯이,
<가사>에 의해 ‘곡’이 흘러간다.
 18. <곡의 생명>은 ‘심정의 소리’다.
 19. <가사>대로 <곡>도 오르내린다.
 20. 사연을 ‘노래’로 읊어라.
 21. <가사>를 지을 때는 ‘단어’를 합당하게 넣어라.
 22. <곡>은 ‘흐름’이다. ‘내용’이다. ‘윙기’다.
 23.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듯, <곡>도 흘러가야 된다.
 24. 폭포수는 흘러야 작품이듯, <전체 곡>을 보고 폭포수같이 가창력을
내도록 음을 넣기도 해야 된다.
- 또한 기암절벽을 타듯, 스릴 있게 작사 작곡을 해야 된다.
또한 강이 흐르듯, 혹은 바다의 파도가 치듯 작사 작곡을 해야 된다.

<곡>에 따라서 ‘계곡물’ 이 되기도 하고, ‘시냇물’ 이 되기도 하고,
‘강물’ 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 이 되기도 한다.

25. <승리하고 이룬 것>은 각종으로 표현해도 이치가 맞다.

26. <승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 역시 각종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27. <노래>는 ‘행한 사연’ 대로 짓고 불러야, 역사를 증명하고 역사에
남게 된다.

28. <거짓 없는 노래>가 부를수록 감격이고 감동이다.

2) 생명의 노래를 부르자

진리의 빛, 노래도 역사다.

한 곡이 한 설교가 아니라, 20장 계시를 축소해서 노래로 표현했다.

<기도>를 ‘노래’ 로 해라.

하나님 음성을 가사로 했고, 성령의 말씀도 가사로 했다. 모두 가수가 되
어라.

내가 가수를 전도하는데 너무 높이 놀아서, 자존심 깎여서 하나님께 이야
기하고 내가 가수 하고, 섭리인이 다 가수 하게 곡을 달라고 했다.

세상 썩는 문화의 노래는 풀풀 시체 썩듯 썩는 노래다.

내용도 없고 오히려 사망으로 가게 한다.

‘생명의 노래’ 를 부르자!

3) 최고의 가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조종>을 잘 못 하고 살면, 재미없이 살게 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음을 높이고 내리면서, 혹은 소절마다 음을 읊으면서,

쭉 뿔을 때는 쭉 뿔으면서

<음 조절, 조종>을 하며 노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가창력을 가지고 ‘조절과 조종’을 잘하며 노래하는 가수가 최고의 가수입니다.

인생 조종, 생각 조종, 행실 조종, 신앙 조종도 그러합니다.

<조종을 잘하는 자>가 재미있게 인생길, 신앙길, 휴거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보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4) 노래를 잘하는 사람

지금은 “누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재능과 능력>대로 맡긴 것을 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자기 능력껏 행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알리게 되고 만족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노래할 시간’을 주어, 실제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해 줘야 됩니다.

◆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 설교 잘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설교할 시간’을 주어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인정하고 알게 해 줘야 됩니다.

◆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주를 통해 실제로 이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이를 매일 깨닫고 알고 살기를 하나님도 주도 원하십니다.

5) 노래 승리의 비법

기술이 없든지, 자신이 없으면 즉시 해지지 않는다.

노래 가운데 어떤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다. 때가 와서 성령께서 지시하고 이미 가사는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기어코 기어 올라가서 10번, 20번씩 반복하면 결국 소리가 난다. 순간의 기회에 즉시 하지 않으

면 기회를 놓치고 만다.

‘능통한 예비’와 ‘날썩은 비호같은 행동’이 현실을 맞고 지금을 제대로 맞고 행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승리의 비법>이다.

6) 기분이 좋을 때 노래도 잘 불러진다

노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분이 좋을 때 잘 불러집니다.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치고 노래 못하는 천사가 없다고 합니다.

7) 기도 안 하고 하면 노래, 찬양 제대로 안 된다

기도 안 하고 하면 노래도 제대로 안 되고, 찬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신령한 기도를 할 수가 없
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기도하러 오라.

8) 사랑도 노래도 닦아 놓아야 한다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간다. 닦아 놓지 않은 곳은 안 간다.
사랑도, 노래도 닦아 놓아야 그 길로 갈 수 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 닦여 있어야 된다.

9) 운동을 많이 해서 몸 관리를 해야 한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폐가 좋아지게 만들고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몸 관리를 잘 하면 60살이 되어도 별로 안 늙습니다.
옛날엔 60살만 되어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 노래도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고 해야 한다

18. 노래도 늘 배우고 하지 않으면 잘 못 하듯이,
감사와 영광도 범사에 하지 않으면 발달되지 않아서 못 하게 된다.
19. 무엇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라.
2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면서 성령과 같이 살려면,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 덩어리’ 가 돼야 한다.

11) 노래도 생각이 살아있어야 잘한다

13. <생각>이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생각하는 대로’ 노래도 잘되고, 가끔씩 하는 운동도 연습 없이 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잠언도 잘 받아서 쓴다.
14. <생각>을 부활시켜, 온전히 생각하여라.

12) 노래 연습 많이 해야 한다

노래 연습도 ‘많이’ 해야
곡을 더 잘 소화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줄 모릅니까?
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더 늙으면 찬양을 못합니다. 목이 가기 때문에 힘
듭니다.

하나님은 노래 못 했다고 그렇게 혼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노래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꾸 하면 노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하면 노래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래 못하면 “히 분위기만 망쳤네.” 그러지만
하나님은 노래 못해도 분위기 망쳤네 소리 안 하실 것입니다.

13) 기뻐하고 좋아하며 자꾸 노래를 불러야 한다

<흥분>은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가령 <노래>에 흥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좋아하며 자꾸 노래를 불러야, 노래에 흥분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흥이 없습니다. 맞지요?

<할 일>에 흥분되려면, 자꾸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일>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할 일의 흥분>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14) 노래의 표현

62. <표현>은 표 나게 해라.

63. <표현>은 ‘표적지’ 를 보고 활을 쏘듯, 총을 쏘듯 확실하게 하여라.

64. <표현할 때>는 ‘넣을 것’ 을 같이 넣고 해라.

65. <표현>은 결합시켜서 ‘끼워 넣는 것’ 과 같다. 거기에 해당되는 합당한 말을 귀에 끼워 넣어야 된다.

66. <표현>은 마치 여러 가지 능선 중에서 ‘최고의 능선’ 을 찾아서 걷는 것과 같다.

67. <최첨단의 표현>은 ‘산의 능선 길’ 과 같아서 쉽고, 듣는 자도 편히 듣는다.

68. <노래>도 ‘능선 길’ 과 같다.

15) 표현을 잘해야 된다

1. <표현>을 잘해야 된다.
2. <소리>를 잘 내야 된다.
3. 노래를 지을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설교할 때도, 각종으로 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표현>을 잘해야 된다.

16) 노래 부르는 자가 가사와 곡을 살리면서 해야 한다

20. <말씀>도 분위기에 따라서 각종으로 전해라.
사람에 따라서 각종 분위기와 맛을 내며 전해라.
21. <노래>도 ‘부르는 자’가 가사에 따라서 곡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잘 읊으며 불러야 되듯이, <말씀>도 ‘전하는 자’가 내용에 따라서 잘 읊으며 전해야 된다.

17) 노래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15. <몸>을 놀리면 ‘몸’이 무기력해지듯,
<생각>을 놀리면 ‘생각’이 무기력해진다.
16. 말을 잘 안 하는 자는 ‘입’도, ‘생각’도 무기력해진다.
17. 걷는 것을 잘 안 하면 다리가 무기력해지듯, <신앙>도 그러하다.
자꾸 ‘시대 말씀’을 듣고 전해 줘야 무기력에서 벗어난다.
18. 노래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노래 예술이 무기력해진다.
<생각>도 그러하다.

18) 섭리의 찬양 단상에서 노래하는 자

◆ 앞으로는 더욱더 ‘흠 없는 자’를 선별하여 <영광의 자리>에 세웁니다.

◆ <노래>도 ‘말씀’입니다.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단상에 서는 자>가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광의 단상에 서는 자>가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 <섭리사 새 말씀>이 중요한 만큼, <섭리사 새 노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한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한두 가지’만 잘하면, ‘가수’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수준이 낮습니다. 모두 배우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정성과 신앙’을 보고, 두 번째로 ‘실력’을 봅니다.

21. <자기>도 크다는 것을 알고,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22. <가수들>을 전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했는데,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안 되었다. <섭리사 노래>는 ‘휴거된 자들’이 불러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그 차원이 높겠느냐. <깨끗한 신부>여야 한다. 곧 <섭리사 신부들>이다. 아니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만든 것’을 보고 쓰신다. <성령같이 깨끗이 만든 자>여야 되고, <삼위의 신부로 만든 자>여야 된다. 그래야 삼위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자들은 영광이 안 된다. <뇌>가 세상 노래로 썩었으니, 그런 것으로는 영광이 안 된다.

8. 찬양의 자세

1)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 치며 자기도 들었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 들어보라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중심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영광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나 치어나 각종 가수단, 관현악단, 피아노, 오케스트라, 각종 예술인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래하며 춤을 추며 손바닥을 치며 그저 웃어가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은 일찍부터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은 80년대 초반부터 불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개발하라” 해서 개발시켰습니다. “예술로 개발하라.” 해서 마이크를 사다줘서 노래하고 만들고 춤을 추게 만들고, 나도 같이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자들로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종교 단체 중에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기성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찬양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시대를 잡고 가야 됩니다. 모델들도 섭리의 모델들은 한 나라의 모델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치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쓰여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니 계속 찬양하라. 계속 식지 말고 부활 복음을 통해서 더욱 역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 생활 속에서 스스로 기뻐서 해야 한다

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안되고 노래도 있어야 하고 기도도 있어야 하느니라.

교회 가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일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일하면서 노래도 하고,

일하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3) 새노래는 깨끗한 신부들이 불러야 한다

<섭리사 노래>는 ‘휴거된 자들’이 불러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그 차원이 높겠느냐. <깨끗한 신부>여야 한다. 곧 <섭리사 신부들>이다. 아니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만든 것’을 보고 쓰신다.

<성령같이 깨끗이 만든 자>여야 되고, <삼위의 신부로 만든 자>여야 된다.

그래야 삼위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자들은 영광이 안 된다. <뇌>가 세상 노래로 썩었으니, 그런 것으로는 영광이 안 된다.

4) 누구나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래할 줄 모른다구요?

우리 아버지는 87세에 별세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가수라고 해서 그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은 노래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 먹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5)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하면 가사를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잘 잊어버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한번 노래를 배울 때 철저히 배우니까 안 잊어버리는데 한국 사람은 노래 해보라고 하면 가사를 잘 잊어버립니다. 1인당 적어도 30곡, 20곡 이상의 가사를 외우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외국 노래도 하나씩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부르든지 일본어로 부르든지 중국 노래를 부르든지 하나씩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지, 한국 사람이라고 맨날 한국 노래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각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쪽으로는 우리 한국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노래 부르려면 감이 멀고 자기나라 노래도 잘 못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9. 새노래

1) 새 시대 새 노래

<세상 노래>는 육적이고, 육만을 위해 노래한다.
고로 만 번을 불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신 ‘섭리사 새 노래’를 불러라.

◇ 말씀 듣고 새 시대 노래를 부르라고 1,700곡이나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지금은 잘 몰라도
시대가 가면서 후손들은 더 귀하게 여기고 부릅니다.
노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베어짐을 당합니다.

2) 세상 노래와 새노래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 개인에서 못 벗어나는 노래들이고 기껏해야 가정차원의 노래들입니다. 그것도 고민과 번민에 찬 노래들이 대부분이고, 목이 메인 이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은 노래들은 범세계적이고 천주적인 그런 노래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역사의 노래들이고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노래들이며 또 천주적인 노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노래를 할 때 뜻을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6. <세상 노래>는 좋게 읊으니 노랫소리는 좋은데, ‘빛 좋은 개살구’라서 내용이 없다.

7. <섭리사 노래>는 ‘영원한 것’을 얻어 놓고 살면서 그 내용을 노래하니 허무하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화답하신다.

8. <세상 노래>는 다시 오지도 않는 ‘과거 이야기’를 노래하고, 쳇바퀴 돌듯 ‘육에 속한 것’만 노래한다.
9. <섭리사 노래>는 ‘영원한 것’을 얻어 놓고 하는 기쁨의 노래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노래다.
10. <세상 노래를 하는 자>는 ‘빈 조개껍질을 놓고 노래하는 자’와 같다.
11. <세상 노래를 하는 자>는 미인을 그려 놓고 그 그림 앞에서 노래하고, 미인 동상을 세워 놓고 껴안아 주며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다.
12. <섭리사 노래>는 사랑하는 자를 ‘실체’로 만나서 기뻐 노래하는 것과 같다.
13. <세상 노래>는 억만 번을 불러도 ‘영원히 남아지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다. 허무하다. 훗날에 당할 운명을 놓고 슬피 읊고 있다. 쓸쓸한 그 세계를 가 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라. 그곳에 가서 보면, 큰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다. 풀벌레 하나도 자기와 같이 놀아 줄 자가 없고, 바람도 한 점 없다. 이것을 자기 육이 노래한 것이다. 고로 그 행위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어 거기에 처해 사는 것이다.

13. <세상 노래 가사>도, <내용>도 ‘하루살이 같은 가사’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리 소리 내며 즐긴다. 늘 ‘그 노래, 그 가수들’이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늘 돌듯 도는 광경이다.

14. <세상 노래>는 ‘육체 덩이가 굴러가는 곡들’이다. ‘늘 퇴폐에 속한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이다. <사랑에 배신당한 가사>가 아니면, <사랑에 미친 가사>들이다. 계속 들으면 거부감이 드니, <노래>도, <그 노래를 부른 사람>도 싫어졌다. 이같이 사람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소리’나 하고, ‘육에 속한 이야기’만 하면, 마치 세상 노래 가사가 듣기 싫듯 <그가 하는 말>도 듣기 싫고, <그 말을 하는 자>까지 싫어진다.

10. 작사 작곡

1) 하나님은 곡을 주시고, 성령님은 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곡’을 주시고, <성령님>은 ‘가사’를 주시고,
<선생>은 ‘노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새 노래’로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 새노래 작사 작곡법

◆ 하루는 급한 것을 깨닫고 집중하다 보니, <노래를 지을 시간>이 됐는데도

가사를 쓸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못 하겠다고 성령께 말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고, 하겠다고 하면 하지.

단, <문제>는 가사를 더 잘 쓰느냐, 더 못 쓰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면 다 하지.” 하셨습니다.

◆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 행하여 1분 30초 만에 ‘가사’를 다 썼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이 ‘가사’가 되고,
<그 말씀하시는 톤(tone)>이 ‘곡’이 되어 작사·작곡을 합니다.

◆ 모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삼위도 도우시고, 안 하면 삼위도 못 도우십니다.

3) 가사 잘 만들기, 곡 잘 만들기

14. 하나님은 노래를 주실 때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사’를 주신다.

‘가사’를 잘 만들어 놓고 ‘곡’을 여러 번 부르면서 잘 만들어서 완성

한다.

노래 한 곡을 지을 때도 마치 진수성찬을 잘 만들어서 먹게 하듯 해야 된다.

15. 가사 잘 만들기. 곡 잘 만들기다.

노래를 주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잘 나타내며 잘 부르기도.

16. <그 노래>는 ‘그 노래의 이미지’ 대로 불러야 된다.

17. <가사의 사연>을 ‘곡’으로 나타내고 ‘노래의 이미지’로 나타내야 된다.

18. 어떤 음식을 먹어 보면, 그 음식을 가지고 더 이상 다른 맛을 못 낼 것 같아도 다른 맛으로 만든다. 먹어 보면 “이게 더 맛있네!” 한다.

<노래>도 이 노래는 더 이상 다른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도 다른 맛이 나게 다른 곡으로 만든다.

19. 늘 그 음식만 먹어 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체질이 되어 그 음식만 먹는다. 그러나 다른 요리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손을 대면, 금방 다른 음식으로 더 맛있게 만든다. 두부 하나를 가지고서도 40가지로 요리한다. <노래>도 그러하다. 한 노래를 가지고 ‘가요, 트로트, 찬송가, 가곡, 판소리’ 등으로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노래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르듯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도 다양하게 돌려라.

4) 가사에 따라 작곡이 달라야 된다

1. <가사>가 다르면, 그 내용에 따라 ‘곡’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야 한다.

2. <가사>가 다른데 거기에 ‘세상 곡’을 붙이면, ‘새 시대 기쁨의 새 노래’가 슬픈 곡이 된다.

3. <가사>에 따라 ‘곡’이 다르고, ‘심정’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

4. 내용이 슬프면, ‘슬픈 곡과 소리’다. 내용이 기쁘면, ‘기쁜 곡과 소리’다.

5. 대화할 때도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 이같이 ‘가사’에 따라 ‘곡’도 ‘소리’도 달라야 된다. 구성지게 불러야 된다.

5) 가사 적어 놓고 음을 흥얼거리면서 반복해서 부르면 된다

작곡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사를 적어 놓고 음을 흥얼거리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노래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외우니까 음이 나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곡이 많이 있습니다.

6) 새노래 지을 때 두 가지, 가사와 곡을 맞춰라

◆ 새노래를 지을 때 성령님은 “〈두 가지〉를 맞춰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사〉와 〈곡〉입니다.

〈가사〉가 〈곡〉을 결정하니, 이것을 알고 부르면 됩니다.

〈가사〉에 따라 ‘곡’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가사〉가 슬프면 ‘슬픈 소리’가 나오면 되고,

〈가사〉가 기쁘면 ‘기쁜 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7) 노래 작곡 작사에 신경 써서 만든다

◆ 선생은 〈하루〉에 ‘기본 200가지’는 신경 쓰고 삽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일합니다.

편지만 해도 신경 쓸 것이 ‘100가지’가 됩니다.

노래를 작곡 작사하면 〈한 곡〉에만 ‘10가지 이상’을 신경 써야 됩니다.

또 〈가사의 글자〉마다 제대로 썼는지 신경 쓰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한 글자>씩 신경 쓰면서 ‘가사’를 써야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만들어도 벌써 ‘수십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5곡’을 만들 때도 있으니,
그러면 <하루>에 ‘백 가지 이상’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잠언 100여 개씩을 꼭꼭 씹습니다.
<잠언>도 ‘계시’이니, ‘한 자’씩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루 18시간 동안’ 글을 쓰는데,
글자마다 신경 쓰니 이것만 해도 ‘수만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사탄도 신경을 안 쓰면, 방에 들어온 모기같이 계속 해를 줍니다.
사탄은 시간마다 해를 주는데 섭리인들이 모르니,
꼭꼭 전체를 놓고 신경 써서 기도도 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니, 기도해 놓고 확인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확인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크나 작으나 세계 각 나라 각 교회를 부르고,
부서와 개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화’로 간구합니다.

8) 틈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나님은 섭리역사 40년 동안 <큰일>은 ‘큰 시간’을 투자하시며 해 오셨고, <작은 일>은 ‘작은 틈 시간’을 가지고 해 오셨다.
<시나 노래를 지을 때>나 <기타 작은 일들 할 때>는 ‘틈 시간’을 가지고 한다.
<잠언을 쓰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하늘과 의논하는 일들>은 ‘큰 시간’을 가지고 한다. 어느 때는 7~8시간씩 투자한다.

9) 핵심 교리는 모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

특히 <부활, 휴거, 말씀 심판> 등을 노래로 만들면

시대 말씀과 핵심 교리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핵심 교리는 모두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야 됩니다.

◆ <시대 말씀>도 계속 증거하며 외치고,
<노래>도 이 시대와 주를 증거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10) 얼마나 잘 하느냐, 수준이 문제다

시나 잠언을 쓰는 것, 노래를 작곡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성경을 푸는 것,
계시를 받는 것, 강의하는 것 등 누구든지 나름대로 하면 한다.

문제는 ‘얼마나 잘하느냐’다. <수준>이 문제다.

하되, 꾸준히 하기다.

그리함으로 ‘자기 개성의 극’까지 하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가 된다.

11. 찬양 사연과 실천

1)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흔히 사람들은 임금을 기쁘게 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청중을 기쁘게 하며 노래합니다. 청중을 기쁘게 하고 노래를 해서 박수를 받고, ‘와’ 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앵콜까지 받으면서 사족이 떨리도록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갑니다. 그러나 간 다음에 그렇게 기쁘니까? 후유증이 생겨서 곤고하고 쓸쓸하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가수들이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이 사라지면 고독하기 그지없고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중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청중 속에 살아도 고독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흠어져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고 사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 찬양 기도 성경의 삶

여기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많았는데 몰라서 찬양을 못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면 10대 때, 특히 어렸을 때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근본을 깨우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깨우쳐줬으면 그 많은 시간, 시간도 남고 또 할 일이 없어서 괴로워했고 인생을 고독하게 살았는데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며 인생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하며 수도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거의 그 세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며 그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21여 년 동안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를 계속 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찬송을 잘 부르는 찬양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가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산에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어느 때는 100곡, 200곡, 혹은 300곡씩을 불렀습니다. 한번 부르면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찬양을 안 하면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봐야 되었는데 한번 성경을 보면 하루 종일 보고, 기도도 하면 며칠씩 해야 되니까 찬양도 며칠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역시 기도하는 만큼이나 은혜가 충만했고 성경을 봐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듯이 찬양할 때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3) 찬양을 한번에 300번 100번씩 했다

내가 산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산에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절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같이 편하게 앉는 법이 없고 특히 마루에 앉아서 무릎 꿇고 설법을 듣습니다. 또 석가 상 앞에서 절도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3천 번씩 한다고 합니다. 나는 3천 번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천 번씩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천 번 하려면 며칠이나 걸리냐고 하니까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3천 번씩은 안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한번에 300번씩, 100번씩 했습니다. 옛날에 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산에 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시간을 가지고 하니까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며칠씩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도 하루에 노래를 수십 번씩 부르고 일주일에 수백 번씩 불렀고

했습니다. 참 잘 했다고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스럽게 인생을 꼭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정성스럽게 살 때 부모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길러왔지만 모두 어렸을 때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같이 아양 떴고 좋아하고, 어깨에 매달리고 허리통을 잡고 치맛자락을 잡고 치마 밑에 들어가고 아버지 허리춤을 잡고 그저 부모 떠나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며 살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커도 사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라 - ‘포도’ 사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웅장하심과 그 능력도 찬양하고, 우리에게 행하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돕고 사랑하시고 위해 주고 섬겨 주시는 것을 찬양하라.

그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셔서 고통을 300배 받을 것을 그저 조금도 안 받고 가게 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 어떤 일은 우리가 볼 때는 해로운 일 같은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은 선생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해서 시장을 갔다.’ 배고파서 시장에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까?’ 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가서 포도를 사서 꺾꺾 찢서 물을 먹으려고 포도를 샀어요.

그런데 포도를 누가 사가고 별로 좋지 않은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면서 아쉬웠지요.

‘나도 포도를 좀 많이 사다 즙을 짜서 먹고 싶은데...’ 했습니다.

강대상의 꽃도 사고 과일도 사고 포도도 사고 갖고 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포도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다 놓은 지를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다 놓고 올라왔나? 그냥 내렸나? 시장에다 사 놓고 그냥 왔나?’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못 찾겠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복이라고 포도 몇 송이가 또 없어졌네.’

값은 한국 돈으로 약 3천 원 될 것입니다. 아니 약 5천 원은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찾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야, 시장에서 주인한테 사놓고 안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해서 주인한테 갔어요.

원래는 내가 안갑시다. 멀리 1천 미터도 넘고, 1킬로도 넘는데 내가 거기서 포도를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까짓 것 잃어버렸으면 말지.’ 했을 것인데, 자꾸 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주인한테 놓고 온지도 모른다.’ 해서 갔는데, 주인이 놓고 가지 않고 갖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를 또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포도를 또 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포도가 또 온다고. 포도가 좋은 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분 기다리니까 그 주인이 포도를 도매로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2박스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떠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싱싱했습니다. 싱싱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박스 몽땅 내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매일 이 시간에 맞춰 오면 항상 포도가 이렇게 싱싱한 것이 온다. 좋은 것이 온다.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많이 팔릴지 모른다. 검은 포도, 새파란 포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포도 저런 포도보다 이런 포도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포도는 시커먼 포도이기에 그것을 원했더니만 그러면 꼭꼭 사다놓겠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싣고 오라고 할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갖고 왔더니, 너무 싱싱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

요. 줍도 짜고.

‘아하, 내가 포도를 잃어버린 것은 이 포도 시간을 맞추려고! 이렇게 좋은 포도가 있는데도 내가 모르니까 포도를 잃어버리게 해서 다시 거기를 가게 만들었구나.’ 나는 그 시간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꼭꼭 가서 그 후로 포도를 내가 한 70박스를 사다가 줍을 짜서 계속 다 먹었어요.

그것을 먹고 책 쓰고, 그것 먹고 한참 부활복음 일으키고, 밤낮주야로 막 밀어붙였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모두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일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잘되게 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렇지, 포도를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제일 좋은 포도를 날마다 사다가 줍을 짜서 먹었어요.

그래서 글 쓰고, 새벽말씀 전하고, 낮 말씀 전하고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행동으로 찬양하고, 생활 속에 찬양하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도 그러하다.”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그리해왔으니 해됨과 상함이 없을 것이다. 혹시 악인들이, 행악자가 너희를 상하게 할지라도, 너를 해하게 할지라도 내가 10배 20배 다 축복을 해 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듯이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5) 자꾸 해야 됩니다

* 선생은 목이 쉬어도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지금이 한창 황금기인데, 이때 안 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목이 언제 풀릴지 모른다. 쉬어도 해 놓고 보자.’ 하고

무조건 매일 두 곡씩 했습니다.

* 이같이 여러분도 자꾸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것은 그때 할 문제입니다.

지금 굶주려도 허리끈을 졸라매도, 지금 할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6) 각종 표적과 찬양의 표적

* 여러분들은 <표적>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해안 밀물이 멈춘 표적>,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멈춘 표적>,
<선생이 하루 저녁에 17곡을 작사, 작곡해서 부른 표적>, <치유의 표적>

<3.16 휴거기념관의 하나님 보좌를 멋있게 만든 표적> 등
모두 맞습니다.

7) 작사 작곡 ‘표적의 역사’

선생님도 이것저것 행한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전보다 10배, 20배, 혹은 50배로 행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곡’을 불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90곡’까지 불렀습니다. 영적으로 사니까, ‘상상도 못 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리듬>이 한번 깨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하면, 다시 서서히 <리듬>을 찾게 됩니다.

선생님도 한동안은 <노래>를 수시로 안 하니까, <리듬>이 깨져서 일주일에 잘해야 한두 곡씩 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은 <첫사랑>을 찾고, <리듬>을 찾으니까 많은 노래를 불러서 ‘상상도 못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90곡 이상을 작사, 작곡해서 부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1500곡을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표적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신앙의 표적을 일으키고 살

아야 됩니다.

8) 낙심할 일이 있어도 작사 작곡해서 노래 불렀다

54.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도 많이 있다. 자기가 시대에 맞춰 못 하니 낙심이 되고, 자기가 할 일 못 할 때도 낙심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 낙심된다.

55. 선생도 세상에 살 때 낙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꼭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노래해야 하니 노래가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노래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려니 안 되고 낙심되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다.

56. 오랫동안 나름대로 조금씩 했지만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며 좋아하는 만큼은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만큼은 할 수가 없었다. -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한 지 약 60년 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57. 어제도 운동 끝나고 10곡을 작사, 작곡해서 노래 불렀다. 음성을 여러 가지로 내는 것도 더욱 알게 되었다.

58. 이같이 극으로 낙심치 않고 가면 결실하는 날이 있다. 끝까지 가면 다 이루어지는데 뭣 하러 가다 마느냐?

9)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행해라

9. <마음>이 커도, <실천>을 안 하면 안 행해진다.

10. 주일예배 후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돕는다는 말씀>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기로 ‘성령님이 도우시니 해 볼까?’ 하고 과감히 실천했더니, 성령님이 가사를 주셔서 한 곡을 불렀다. 음성이 만족지는 못했어도 해냈더니 다음에 또 가사를 주셔서 불렀고, 부를수록 계속 가사를 주셔서 7곡을 불렀다.

이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었으나, 성령이 돕는다는 것을 믿고 행하니 부를수록 더 가사를 주시고, 음성도 더 좋아져서 ‘많이’ 부

르게 됐다.

11. ‘조금’ 이라도 생각이 들면 행해라. 하면 할수록 ‘크게’, ‘많이’ 행해진다.

10)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 선생님은 은혜가 충만해서, <주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과 성령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재치 있게 일어나서

<3.16 휴거기념관 본당>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가사>를 주지 않으셨는데도,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심금을 울리는 명곡들’이 나왔습니다.

<총 16곡>을 불렀습니다.

- 그리고 집에 가려고 운동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한 장년부’가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해서 약수를 떠가는 길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자기 생일’인데,

생일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또, 마음이 ‘스스로’ 감동되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두 곡’을 불러줬습니다.

주일 설교 때 받은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마음이 감동되어 계속 행해진 것입니다.

- 선생님도 노래를 불러주면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실 가닥 같은 가사 한 줄>도 주지 않으셨는데,
선생님이 은혜 충만하여 <스스로> 노래했으니,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고 한 것입니다.

• 성령님은 이같이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 <실 가닥만 한 것을 가지고 행하여 창대하게 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가 있으니,

바로, <실 가닥>도 없는 데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니라.

▶ <실 가닥 같은 것>을 안 보여줘도 ‘스스로 시작’하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게 되느니라.

▶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자>는
무(無)에서 - ‘유(有)’를 창조하여, ‘창대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 <하나님의 뜻인 것>은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시작해도
<결국>에는 ‘황금천국 바닥’이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하시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게 됩니다.

• 선생님은 <스스로 행하여>

성전 안에서 16곡, 운동장에서 2곡, <총 18곡>을 불렀습니다.

<성전 안>에서 부른 것도, <운동장>에서 부른 것도

모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사’를 주지 않으셨어도,

선생님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노래의 책임’이 있으시니,

동참해서 가사를 주시며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 이와 같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시동이 걸려서 ‘열’을 내게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증거자>는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게 되고,

<전도자>는 ‘전도’를 하게 되고,

<관리자>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11) 처음에는 실 가닥같은 데서 행했다

- 선생님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항상 ‘실 가닥같이’, 혹은 ‘실 가닥도 없는 데’ 서 행했습니다. <시>를 써도, <잠언>을 써도, <노래>를 해도, ‘자료’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처음>에는 ‘가사 한 소절’, ‘한마디 말씀’이 실 가닥 같이 오기도 했고, ‘스스로’ 시작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성령님이 돕고 함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 이같이 계속 뚫고 들어가서 행했더니, <시>는 많이 쓴 날은 하루에 ‘70편’을 썼고, <잠언>은 많이 쓴 날은 하루에 ‘200 잠언’을 썼고, <노래>는 한 자리에서 ‘24곡’까지 작사 작곡해서 불렀고, <전도>는 한 자리에서 ‘2000명’을 전도했고, <병 고치는 것>은 한 시간 반 만에 ‘80명’도 고쳤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기도의 기록>은 한번 시작해서 ‘8일’, <금식 기도>는 ‘70일’입니다.
- <축구 기록>은 40분 경기에 ‘37골’입니다.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밖에 안 땀습니다.
- <빨리 다니기, 축지 기록>은 150리를 ‘2시간 30분’에 간 것입니다.
- <야심작을 쌓을 때 기록>은 ‘무너진 돌’을 끄집어내고 ‘15일 만’에 다시 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12) 지휘하는 것을 하나님께 배웠다

내가 지휘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지휘할 때 보면 대단해.’ 하는데 나의 지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같은 노래도 1절과 2절 지휘가 다릅니다.

한 번 지휘하면 평생 그 지휘는 안 써먹습니다. 다르게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의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써먹습니까?

또 써먹을 것이 없어서 재탕한단 말입니까?

자기 집에 사슴을 기르는데 녹용을 재탕, 삼탕해서 먹습니까?

항상 새것을 삶아 먹지 재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풍부하신 존재자입니다.

12. 새노래 사연

1) 나는 행복하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현재는 삶이 기쁘고 여러 가지를 누리며 쾌락 속에서 먹고 즐긴다 해도 결국 멸망과 고통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길이라면 웃을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 주를 믿으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그 세계를 생각하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울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에도 나와 있지만,
행복이란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기도는 일이다

25. 어느 날 선생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서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어 시체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죽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하셨다.

26. 기도를 해 주는 것이 그리 크다. 본인의 의가 없어도 기도를 해 주면 죽음에서 살고, 어려움에서 산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의 결과가 그리도 크다.

27. 그동안 민족의 일이든 세계의 일이든 기도해서 안 될 일도 되었다.

28. ‘나 하나 기도한다고 민족의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확대시킨 민족도 동일하다.” 하셨다.

29. 개인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를 낫게 해 달라고 부르짖고 손을 대고 뼈를 맞춰 주고 잡아당겨 주며 10년, 20년, 35년 동안 아픈 자들을 현장에서 고쳐 주었다. 죽은 자를 살려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아예

죽을 곳에 못 가게 해서 살려 주기도 하고, 죽었는데 살려 주기도 했다.

30. 과거에 이와 같이 해 온 것을 시인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똑같다. 민족이라고, 세계라고 더 소리 지를 것도 없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셨다.

31. 그때 <기도는 일이다> 노래를 지었다. 그때는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였다. 기도해서 민족을 구해 놓고 노래를 지었다.

32.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네 기도로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기도가 그렇게 크다.

33.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3) 성령님

* <성령의 아름다움>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서쪽 하늘’을 보여 주셨습니다. * [저녁노을 그림]

- 선생이 중국 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고 하니,

3일 만에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방을 옮기면서 ‘서쪽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계획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방을 옮기게 돼서 하늘은 그때 딱 한 번 본 것입니다.

그때 본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찬란한 하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저럴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도 쓰고 노래도 썼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움>은 환상적이고, 신비하고, 오색찬란했습니다.

* 왜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아침노을이 아닌 ‘저녁노을’로 상징했을까요?

<햇빛이 가장 부드러울 때>가 ‘저녁 해 질 무렵’입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햇빛이 가장 부드러울 때인 저녁노을>로 상징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햇빛이 가장 찬란하고 강할 때>는 <아침 해가 뜰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를 ‘하나님’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4) 화목

60.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서 서로 헤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안 맞고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많이 부딪힌다. <화목>이라는 계시의 노래를 보면 “생각은 각각이나 뜻은 하나다.” 라고 했다.
61. 싸우는 것은 절대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다.

5)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강하게 하면
사탄, 마귀, 악평자, 꺾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굳건합니다.
절대 어떤 악도 그릇된 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악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절대로 의를 행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악과 불의를 조금씩 용납하고 의를 살살 행하니,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철강같이 강하게 해야 됩니다.
- 이 노래가 ‘자기 고백의 노래’가 돼야 합니다.

13. 찬송가 사연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딱 한 곡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입니다.

이 노래를 며칠씩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습니다.

지금 불려도 지루함이 없이 계속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2) 주의 주실 화평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도 길이 들어서 자꾸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노래 안 하지요?

이제는 부활되었으니까 영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부활되었으니까 영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육만 노래하지 말고 영으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주실 화평’

이 노래가 헌금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위치에 가면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는 소망 되시며’

이렇게 자꾸 불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자꾸 노래를 계속 불러보면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노래 부르는 표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슬프게 살고, 왜 걱정하며 살고, 불안에 떨며 살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3) 요한복음 3장 16절

•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 기존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알지요?
이 성경말씀 그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 선생님은 아홉 살에 교회에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기보다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시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맞기를 소망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며 굳건한 신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아 육도 죽음에서 살고, 영도 살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사랑”입니다. “오, 나의 사랑” 하듯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제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위해주고, 얼마나 지켜주고, 얼마
나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올라가 봐야 압니다. 알겠
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무대에 올라가 봐야 압니다. 무대에 올

라가면 조명 비춰주고, 박수 쳐주고, 꽃 주고, 선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렇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다.”

지금은 사랑의 시절입니다. 그전에 어렸을 때는 사랑의 시절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성장기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 사랑의 시절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와서야 겨우 아들의 세계에서 2천년 동안 성장되었습니다. 아들같이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주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시대에 따라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 성약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인 같이 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듯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섬긴다.” 이것이 깊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깨닫고 와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애인으로 사랑했습니다.

왜? 내 애인이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없으니까 고통과 고역과 아픔과 쓰라림 속에 사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애인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인이라고 하고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며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14. ‘찬양’ 성경구절

창세기 14장 20절 :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29장 35절 :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출애굽기 15장 1절 :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다

신명기 8장 10절 :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역대상 23장 5절 :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역대상 23장 30절 :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사기 5장 2절 :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욥기 36장 22절~24절 :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찌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시편 9편 2절 :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22편 3절 :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이다

시편 33편 1절 :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5편 28절 :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40편 3절 :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5편 17절 :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7편 7절 :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57편 7절 :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67편 1절~7절 :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8편장 33절 :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편 68편 35절 :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9편 34절 :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시편 84편 4절 :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편 89편 52절 :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96편 1절~3절 :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8편 4절~6절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편 100편 1절~5절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감사〉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키(key)’ 이고,

‘여호와의 사랑의 방에 들어가는 키(key)’ 입니다.

시편 109편 30절 :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시편 113편 2절 :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라

시편 135편 3절 :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5편 3절 :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

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시편 148편 1절~13절 :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찌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찌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찌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50장에는 찬양에 대해서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찌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서 찬양해야 된다.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 찌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찌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기로, 통소를 불며 찬양할 찌어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큰 소리나는 제금을 울려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특히 찬양할 찌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찌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 때에 40년 가까이 태평세월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33년입니다. 7년 동안은 적한테 쫓기던 연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충만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6편 25절 :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고린도후서 1장 3절~4절 :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에베소서 5장 19절 :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신약 때 예수님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 사도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한 말씀입니다.

15. ‘찬양’ 과 성경인물

1) 다윗

<다윗 왕>은 문학가요, 음악가요, 시인이요, 못 하는 것 없이 다양하게 잘 했다.

다윗 왕은 온 백성들이 음악의 예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했다.

섭리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게 했다.

다윗은 예술과 문학의 재능으로 ‘시편’도 썼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목축하는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활 전체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문고를 켜며 기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생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한 사람으로 찬양을 가장 많이 다룬 자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 특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말을 그렇게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목동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 시대 때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 일을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무조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민족이 동시에 자기 위치에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왜 찬양하냐?”

“많은 군대들의 죽음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주었다. 우리 나라보다 10배 20배 강한 앗수르나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나.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찬양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신앙심은 있었으나, 우상을 섬기는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진짜 신앙의 대상인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을 못 찾고 있었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여호와다.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매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3~4대까지 축복을 주셨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

3) 야곱

<야곱>은 기도 중에 ‘천사들’도 보고

기빠서 찬양하며 용기를 내어 외갓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 <야곱>은 외갓집에 가서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 양을 치면서 시간을 최대한 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야곱의 것이 되는 ‘얼룩진 양을 낳는 비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행하여 ‘얼룩진 양’이 자기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 <경제 축복>을 받고, <결혼 축복>도 받았습니다. (창 30-31장)

4)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공의롭게 성실함과 진실함으

로 행하셨습니다.” 했다 (사25:1).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의 뜻을 하나님께 두어라.

16. ‘찬양’ 과 월명동

1) 찬양하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란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부름에 택함 받은 곳,
택함 받은 자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입니다.

성지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2)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쓰여지는 거룩한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왜 채찍을 들었는지 압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위해서 장사하니 채찍질하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며
생명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지땅’은 관광지도 아니고, 수련원도 아니고, 조용한 산책 장소도 아
니고, 구경시켜주려고 만든 곳도 아니고, 조정세계 작품으로 만든 곳도 아
니고, 연애 장소도 아니고, 데이트 장소도 아니고, 문화 예술을 하며 축구
하려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일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육과 영
이 구원받아 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쓰여지
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망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며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쓰여지는 거룩한 성
전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연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 것임을
알고 귀히 써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시 보고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3) 자연성전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이로다
보호는 성자 성령님 우리는 손과 발이 되었다
뜻이 있는 곳인데 어찌 뒤로 물러나라

돌은 무너났어도 내 마음은 여전타
오전 육기 백절불굴 실천이다
성자 함께 기어이 해내고 말았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성지땅 주 하나님 자연성전
월명동 삼위의 자연궁전

4) 월명동 소나무 : 하나님을 찬양

아름다운 소나무는 시대 천 년을 상징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심어 웅장하게 하셨도다. 사역자들을 통해 이 민족에 좋은 소나무들을 보내시고, 찾아오게 하여 심게 하시고,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천 년 동안 가게 하셨도다.

전에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기 위해 이미 어린 소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고, 키우게 하심으로 수천 주의 소나무들을 예비하시고, 이곳만이 더욱 빛이 나게 하셨도다.

그 소나무들이 거목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푸른 숲과 대(大)정원으로 꾸며졌나니, 동산에 새들이 모여들어 거하게 하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도다.

5) 성지 땅에 백합화야

작곡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지 땅의 백합화야’ 노래는 중국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거기서 외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곡을 부르고 있는데, 음이 틀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내면서 불러야 합니다. 설교도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옵니다.

6) 폭포 사랑

한 줄기 폭포수 같이
흠어짐이 없이
내 사랑은 하늘 위해
쏟아져 내렸네
폭포수 같은 내 사랑은
변치않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창조목적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형상을 구상하고
대 걸작품 만드셨네
폭포수 같은 내 사랑은
변치않고 영원하리라